

북구, 민선8기 핵심공약 사업 추진 탄력

내년 예산 9천850억 확정...294억 증액

더불어 경제 등 ‘행복 북구 조성’ 속도

광주 북구가 열악한 재정자립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일부 증액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 의결을 거친 북구의 2023년도 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9천573억원과 특별회계 97억원 등 총 9천8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94억원 (3.08%) 늘어난 예산 규모다.

북구는 확보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행복 북구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북구 공약의 핵심인 ▲더불어 경제 ▲포용복지 ▲녹색안전 ▲주민품격 ▲생활문화 ▲미래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영향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금리 인상으로 지역경제의 장기 불황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 상생자금 조성 8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5억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녹색성장·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안고 주변 악취저감사업 11억원,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10억원,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1억원, 북구청사거리 일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저류시설 정비 1억원 등을 투입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사회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북구는 운암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49억원,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 28억



여성친화도시 성과 공유회 개최

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성과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원, 도로정비 43억원, 공원 관리에 27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1천756억 원, 생계급여 799억원, 영유아 보육료 450억원, 주거급여 346억원과 내년에 변경 시행되는 부모급여 131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선형성지원 사업 56억원 등을 반영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2023년도 북구 예산은 민선8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



광주 북구는 지난 16일 행복아울러센터 강당에서 문인 청장과 여성단체 회원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 ‘2022년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성과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부문 대상

통합돌봄모델로 지자체 복지 패러다임 전환 기여

광주 서구는 1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돌봄 계획 수립,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서

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노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가에서 서구는 ▲7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의무방문 ▲행복매니저 앱 개발 ▲서구 안심5개어 (주거, 보건의료 등) 서비스 제공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24시 안심콜 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서

구만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금까지 이뤄온 서구의 통합돌봄모델이 지자체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구만의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복지메카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가 2019년 6월 시작한 지역

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서구가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평가로 의미가 크다는 평을 받는다.

/안재영기자

충장동,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 교실’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장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월부터 65

세 이상 독거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수업이 진행된 치매 예방 교실에

서는 충장동 주민자치회 소속 이금숙 위원의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치매 예방 키트 활용법 안내, 실버공예 만들기 등을 했다.

또한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으로 참여 어르신을 위한 혈압측정기를 제공하고,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혈압측정 교육 시간도 가졌다.

임경숙 충장동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치매 예방 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면서 “내년에도 참여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남구 청소년들 ‘우리마을 어벤져스’ 최우수상

‘방과후 아카데미 공모전’ 호평

광주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22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뒤 현장답사와 실험 등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마을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

18일 남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소프트웨어와 사회 이슈, 교과 연계, 일반 부문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사회 이슈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37명과 함께 지역 문제를 토대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마을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관내 청소년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실험적 방식의 프로젝트에 참여, 협력기관인 공하나 협동조합과 연계해 공간 개선팀을 비롯해 교통환경 개선팀, 문제해결 활동팀으로 나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시선에 비춰진 동네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증가를 위한 공간 만들기 등을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및 공원 주변의 금연구역 안내 방법, 청소년증 기능 개선 및 자동등록 등이었다.

관내 청소년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답사와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 카페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증 기능 개선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직접 디자인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기도 했다.

/오복기자

주민·반려동물 상생 ‘마을실험’ 눈길

광산구 우산동캠프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산책길’ 활동 진행

마을 어린이공원 꽃밭에 방치된 반려동물 배변문제를 유쾌한 전시와 익살스러운 캠페인 등을 통해 해결한 광산구 우산동 주민들의 ‘마을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우산동캠프 (이하 우산동캠프)는 올해 광산구 생활문제해결형 마을실험실 공모사업에 참여,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길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우산동에 있는 ‘자유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아이들이 누군가 치우지 않은 반려견 배변을 밟거나 만지는 문제가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반려인과 주민이 다투거나 갈등을 겪자 우산동캠프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했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독 자유어린이공원에 반려동물 배변문제가 심한 이유를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산동캠프가 시도한 것은 다름 아닌 전시회다. 우산동 주민들은 공원 꽃밭에 방치된 반려견 배변에 아광테이프를 두른 투명플라스틱 컵을 덮고, 발견된 날뽀를 적은 것발을 세워 지난 10월29일부터 ‘꽃 밭에 놓인 웬 똥’이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다.

치우지 않은 배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공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반려인들의 행동과 양심을 움직여 보자는 취지였다.

전시회 초반 이전과 달라진 게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그냥 가계?’ 캠페인이다. ‘4컷 만화’처럼 주목도도 높이고, 반려인들이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배변인식 개선 캠페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산책하는 반려인들의 편의를 위한 배변함도 설치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투명플라스틱컵 속에 있던 배설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 곧 전시됐던 모든 배변이 자취를 감췄다. /이육근기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 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료가기인중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무직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2중로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무직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퍼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

CMYK